

'24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3	3.13	회의실	7/13	4	1	12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영신·송경용·오광호·이상길·이숙희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김귀빈(콘텐츠혁신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3	3	0	3	9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0	0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경기장에 관중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광주FC에 관한 관심을 바람	<뉴스투데이> 광주에서 프로야구·축구보고 관광까지(4.3), <시사인터뷰 오늘> 한 주 스포츠 브리핑 등 방송 조치	'24.3.
"	의대 증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알려주길 바람	<시사 용광로> 의대 증원 논란 속 지역 의료는?(3.14), <뉴스데스크> 의대 증원..지역인재전형 확대 협의(3.24), <뉴스투데이> 의대설립 청신호 켜졌지만(3.21), 의대 신설 첩첩산중(3.19) 등 방송 조치	"
"	돌봄 사업,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등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 관심 바람	<5시 뉴스> 전남도, 올해 430만 그루 나무 심어 탄소흡수원 확충(3.21), <본방을 보자> 재활용품 동구라미 가게 소개(3.21), 이상기후 농가 피해(3.19) '광주를 녹색도시로' 식목일 나무 심기(3.21) 등 방송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전해주길 바람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3.25)	"
"	<본방을 보자> 우먼 파이터 코너 무거운 느낌임. 인터뷰, 조명, 배경음악 등 통해 변화 바람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3.25)	"
"	<본방을 보자> 결혼 장려금 서비스 내용 정리한 도표 소개 필요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3.25)	"
기타	<광주MBC 보다> 다시 보기 페이지에 <본방을 보자> 프로그램 영상이 잘못	홈페이지 다시 보기 수정 조치(3.14)	"

	올라와 수정 필요		
”	난장 공식 블로그 관리 미흡함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프로그램 제작 재개 시 관리 조치(3.25)	”
”(시청자 의견)	컷오프되어서 반발하는 사람은 부각하면서 오히려 경선 참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미흡함	<뉴스투데이> 총선브리핑, <뉴스데스크> 이번 주 28일부터 선거운동(3.24) 등 방송 조치	”
합계		9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경기장에 관중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광주FC에 관해 관심을 바람	광주FC를 비롯한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의대 증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알려주길 바람	의대 정원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보고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관심을 가지겠음	○		
"	돌봄 사업,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등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 관심 바람	지역민의 일상에 미치는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전해주길 바람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방송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우먼 파이터 코너 무거운 느낌임. 인터뷰, 조명, 배경음악 등 통해 변화 바람	해당 코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나가겠음	○		
"	<본방을 보자> 결혼 장려금 서비스 내용 정리한 도표 소개 필요	시청자가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현하겠음	○		
기타	<광주MBC 보다> 다시 보기 페이지에 <본방을 보자> 프로그램 영상이 잘못 올라와 수정 필요	업로드를 잘못 올렸으며 더욱 유의하겠음	○		
"	난장 공식 블로그 관리 미흡함	현재 프로그램 제작이 없는 상태나 향후 제작이 재개되면 신속히 관리하도록 하겠음	○		
기타(시청자 의견)	컷오프되어서 반발하는 사람은 부각하면서 오히려 경선 참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미흡함	다양한 입장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3월)

일 시	2024. 3. 13.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이상길, 이숙희(7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김귀빈 콘텐츠혁신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곽선희 부위원장 : -오늘은 조경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됐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김낙곤 사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며, 사장님 인사 말씀도 듣고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차기 사장으로 재신임받았다.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의 소중함을 느끼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사장님께서 그동안 잘해오셨고, 여러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축하드리며, 업무보고를 들겠다.
- 김귀빈 콘텐츠혁신팀장 : -<아시안 탐밴드>가 라파 국제공동제작에 선정돼 지원금 2억 원을 받게 됐다. <전설의 타이거즈> 최영필, 홍우태 편을 제작 중이며, <영산강 그란폰도>는 5월 11일 열린다.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캠페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캠페인과 다큐로 방송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 <본방을 보자>와 캠페인, <전설의 타이거즈>, <열씨구TV>, <더 프레지던트>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계속한다. <풍류 달빛 공연> 녹화가 3월 18일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영산강 그란폰도 in 나누는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창업콘텐츠 기획 회의와 아시아 e스포츠 게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며, 키즈라라 내 광주문화방송 체험관 콘텐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계획돼 있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뉴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8천 명에 머물러 있는데 11만 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광주·목포·여수MBC가 구독형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언론재단이나 호남대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차별화된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광산갑, 광산을, 나주화순 등 토론회를 방송하며, 지역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하겠다. 여론조사 공표 마감을 앞두고 한 차례 정도 격전지 여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선 보다 뜨거운 민주당 경선에 대해 보도를 해왔는데, 4.10 총선 민주당 후보 속속 확정, 현역 의원 탈락,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민 반응, 조국혁신당 주목 등을 주제로 보도했다. 의대생 증원 정책에 의료계 반발과 대학 병원 진료 차질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전대병원 병동 폐쇄 등 진료 공백을 취재했고,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사태 해결만 기다리는 환자들 사연도 보도했다. 또한 낙석 산사태 현장에서 보여준 안전불감증 연속 보도했다. 날이 풀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고객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실상을 보도했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시사보도본부에서 보도한 뉴스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보도를 잘하고 있다. 고생 많으셨다. 순서대로 강필오 위원님부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강필오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우먼파이터'라는 코너가 첫선을 보였다. 첫 번째 주인공인 종합격투기(MMA) 김소을 선수는 자신의 승부욕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모

습을 방송했다. 헬스하는 여자, 운동하는 여자 등 여성들의 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여성 투기 종목 운동선수들의 강인함을 보여주셨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것부터 완성해 가는 김소울 선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광주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공원을 찾아가 올해의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 행사에 대해 유쾌하고 즐거운 진행을 보였다. 2월 29일에는 최고의 씨름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씨름 최희화 선수를 소개했다. 십자인대 파열 후 재활을 이겨내고 부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견딘 최희화 선수의 얘기를 통해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조금이라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유도 선수로 대학 졸업 후 씨름단을 입단하여, 남들의 시선과 종목 전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4년 만에 장사에 등극하였고, 다시 태어나도 운동을 선택할 거라는 의지가 돋보였다. 3월 8일에는 시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랑스러운 광주FC에 대해 소개했다.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의 막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평균관중 6천 명이 넘으면 이정효 감독 사비로 광주형 자동차를 마지막 홈경기 때 경품으로 내놓겠다는 공약을 통해 선수들한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개막전 표가 2분 30초 만에 매진되었다고 하니, 이정효 감독의 공약이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광주FC의 경기력을 지금같이 유지하여 축구를 좋아하는 고정 팬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장에 관중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광주FC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3월 9일 <전설의 타이거즈>에서는 왕년에 유명한 선수들의 라떼 이야기와 선수들과 얹힌 히스토리와 비하인드까지 들을 수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이브 생중계와 함께 하는 <영산강 그란폰도>가 5월 11일(토) 전남 나주시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3월 18일(월) 오전 10시 선착순 500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전거를 즐기는 광주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과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

○ 객선희 부위원장 : -강필오 위원님께서 체육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다.

○ 김영신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 프로그램은 MC를 보고 있는 유채훈 님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인다. 실력 있는 뮤지션이 출연하는 몇 안 되는 고품격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광주MBC 프로그램 소개 화면에 연동된 난장 공식 블로그가 최근 들어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방을 보자>는 3월 들어 세트장의 분위기 및 진행자의 의상이 파스텔톤으로 화사하게 변경되어 방송 시작부터 봄 분위기가 물씬 나서 좋았다. 3월 7일자 방송에서는 봄날의 자전거 여행으로 광양 섬진강 자전거 길을 소개해 준 것도 좋았다. 평소 저녁 6시에 방영되어 제목과는 달리 본방을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데,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 동네 생활 정보,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뉴스 등과 같이 매우 알차고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봐도 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어서 좋다. 계속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에서는 화순군이 결혼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부부당 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 보증 연도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21년 3월부터 백선여덟 쌍의 부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기간 총 육억 천 사백만 원의 결혼 장려금이 이미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모두 화순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화순의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한다고 한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국제결혼 시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적 취득 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전라남도 지역마다 결혼 장려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설명해 주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라남도, 22개의 시군 축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는 청정 전남이라는 지자체 구호에 맞춰 우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원년의 해로 삼

기로 그 뜻을 모은 것이었다. 행사장의 푸드트럭 등 기존에는 일회용품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개의 시군에서 축제자를 모집할 때부터 음식 판매 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회용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일회용품을 줄임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마지막에 청취자들 혹은 행사 참여 시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될 관객, 음식점 등 다양하게 참여하는 대상들에게 미리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7일 방송에서는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전남대와 조선대가 다른 지역 의대보다 현격히 적은 숫자를 신청해서 열악한 지역 의료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진의 인원이 부족하고, 실습실 면적도 당장 늘리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35명 증원을 결정했다가 50여 명으로 증원하였고, 조선대 역시 증원이 의대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여론으로 인해서 45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총 증원 신청 수는 정부의 2천 명 증원 계획을 훌쩍 넘어서 3,40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의료에서는 소아, 청소년, 심장 등 필수분야 부족 응급의학 등 필수분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진 확대를 위해서 좋아지는 점과 향후 발전 사항 또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주고 의료인 증원 시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좋은 이익이 생기든지 알려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박선희 부위원장 :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수만 늘리는 건 아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아이들이 없어 폐원하는 마당이다. 잘 파헤쳐서 정확한 내용을 전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오광호 위원 : -3월 4일 <광주MBC 보다> 프로그램에서는 비건을 소개했다. 채식주의는 음식을 먹는 범위에 따라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등으로 나뉘는데, 비건은 완전 채식주의를 뜻한다.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 동물권 보호, 환경 보호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최근에는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캠페인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 중 하루만 채식으로 전환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5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홈페이지 <광주MBC 보다> 다시 보기 페이지에 <본방을 보자> 프로그램 영상이 잘 못 올라와 있다.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3월 6일 <본방을 보자>에서는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1,000만 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모두 화순 거주하고 부부 중의 한 명은 초혼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국제결혼 시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면 수령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좋았다.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라남도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정 시간 내 돌봄, 가사, 동행 지원 등의 기본서비스와 식사 관리, 심리 지원, 건강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같은 어르신들 흐릿한 영상이 반복해서 3~4번 정도 나왔는데, 같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것보다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도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울러, 전남 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장려 소식은 더욱 권장해야 할 것 같다.
- 이상길 위원 : -2월 29일 <본방을 보자> 뉴스 본방에서 광주 출생아 수에 관해 소개했다.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었다. 광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1명이었으나, 전남은 0.9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소식까지 같이 전해주어 좋았다. 또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정책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정책의 변화를 촉구해서 좋았다. 광주 교통의 요지이자, 쇼핑의 요지이기도 한 유스퀘어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백화점 개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입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반응까지 알 수 있어 좋았다. 제38회 광주연극제 뉴스는 찾아보기 힘든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니 접하기 편할 것 같다. 기간, 장소, 연극 혹은 전시의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어 관심을 가지기

쉬울 것 같아 훨씬 좋았다. 우먼 파이터 씨름 최희화 선수 편은 평소 접하지 못할 코너라 신선해서 좋았다. 우먼 파이터라는 컨셉으로 여자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도 깨주고, 또한 요즘 많이 보지 못할 씨름이라 더 특별했다.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 다른 코너들처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면 앞뒤 코너들과 무드가 더 맞을 것 같다. 혹은 조명이나 배경음악이라도 조금 밝은 걸 써도 좋을 듯하다. 중간 오픈 채팅 확인을 통해 시청자들 의견을 읽는 게 시청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좋았다. 여수의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을 소개할 때 요즘 전 세계에 김밥 열풍이 있다는 걸 같이 말하며 더 이목을 집중시켰다. 생각지 못한 다양한 김밥을 소개해서 좋았다. 맛 소개를 인터뷰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님이 함으로써 더 신뢰도가 올라갔다.

- 이숙희 위원 :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광면역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하루빨리 국가에서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조속한 허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 기술이 상용화되길 바란다. 태어나는 것은 결국 죽는 게 필연적이다. 제 사촌 중에 85세 이상이 아홉 분이다. 이분들이 죽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고민이나 했더니, 저희 엄마도 그렇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을 얘기해서 전달되는 것, 연명치료 거부는 본인이 보건소에 가서 사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본인이 쉽게 결정할 수 있으면 한다. 병원도 본인이 가는 거니까 의사와 얘기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에 대한 부담과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것도 초고령사회에서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박선희 부위원장 : -3월 29일 <시사 용광로>에서는 ‘민주당 공천 논란 확산 총선 영향은?’ 편을 방송했다. 법 만드는 국회가 총선 41일 전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현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주소인 것 같다. 선거구 조정과 공천받은 인물들의 자질 및 공천과정의 문제점은 선거 후 다시 다뤄야 할 문제일 것 같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방법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 야합은 국회 아닌 다른 곳에서 공론화를 통해 늘리는 방법을 다시 다뤄야 할 것 같다. 패널들 토론 시 네 분 얼굴을 화면에 나란히 동시에 배치한 모습은 다소 불편했다. 3월 6일 <본방을 보자>에서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봄꽃 축제 소식을 들으니 봄의 기운 물씬 느껴졌다. 뉴스본방에서 화순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 장려금을 부부당 5년에 걸쳐 1,000만 원을 지원한 정책을 소개했다.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의 일환인 것 같다. 전남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과 19세 이상 청년지원과 44세까지 청년, 중년, 장년 등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돌봄 사업도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정책인 것 같다. 전라남도의 도비 8억 원 지원으로 22개 시군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원년의 해 소식도 반가웠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월간 본술랭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된 근교 맛집 소식 반가웠다. 가정집을 개조한 퓨전 오마카세 맛집으로 한꺼번에 세팅해서 제공한 풍족한 구성과 고급스럽고 조화로운 색감이 식욕을 자극했다. 후식 카페의 다양한 디저트와 넓고 멋진 장소 소개와 감미로운 음악에 꼭 가고 싶은 욕구 느껴졌다. 3월 7일 뉴스본방에서는 의대 정원 신청에 다른 지역에 비해 교수 부족, 실습실 부족, 질 저하 등 여건이 부족하여 현저히 적은 수를 신청하였다는 발표에 실망감이 컸다.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는 등 전남에 의대 증원 절실한 상황에 전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관계자들의 현실 상황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대전 대학의 영화 촬영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별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시대에 맞은 건축양식이기에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으면서 수익도 올린 것 같다. 무조건 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축양식과 문화가 들어있는 근대, 현대 건축디자인을 통해 전통문화 양식이 잘 살도록 K 문화 건축양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듯하다. 그밖에 빛고를 시민 문화관의 전국연극제 소식과 자세한 안내를 본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30년 추억의 전통 맛집의 대전 오징어 국수는 별미인 것 같다. 돌봄 사업,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의대 증원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오늘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주셨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적

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